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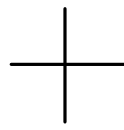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

2020년 입주 예술가 최종 심의결과 안내



2020.03.02(월)
~03.06(금)

2020 입주 예술가
입실 기간



2020.01.30(목)
14:00~
C동 공연장

입주 예술가
오리엔테이션

인천아트플랫폼

2020년 입주예술가 공모

최종 심의 결과 안내

주소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시각예술. 032-760-1003
공연예술. 032-760-1011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예술가 선정 공모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인천아트플랫폼 11기 입주예술가 선정 최종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24.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최종 선정자

시각예술부문			성명	이메일
예술가	2020.03 -2021.01	1	최○연	c*****n@naver.com
		2	김○주	j*****g@gmail.com
		3	김○정	m*****m@alum.calarts.edu
		4	임○식	l****2@naver.com
		5	박○혜	v*****k@gmail.com
		6	김○연	j*****n@gmail.com
		7	윤○영	j*****7@gmail.com
		8	김○나	a*****r@gmail.com
		9	이○수	s*****1@gmail.com
		10	조○재	k*****o@yahoo.de
		11	장○연	j*****a@gmail.com
		12	김○영	c*****1@naver.com
		13	양○원	j*****a@naver.com
		14	박○	p*****e@gmail.com
		15	민○은	y*****n@gmail.com
	A(2020.03-05)	16	R*l**d F**k*s(Slovakia)	f*****d@hotmail.com
	A(2020.03-05)	17	T**O*O K**U**l(Japan)	k*****o@gmail.com
	B(2020.06-08)	18	B**a L*u(China)	l*****8@gmail.com
	C(2020.09-11)	19	B**U**T R**Z(Philippines)	b*****z@gmail.com
기획자	2020.03 -2021.01	1	조○현	n*****t@gmail.com
공연예술부문			성명	이메일
예술가	2020.03 -2021.01	1	코*아(대표자:권○우)	b*****z@gmail.com
		2	이○원	j*****c@naver.com
		3	박○영	j*****2@gmail.com
		4	윤○호	c*****r@naver.com

예비 선정자

시각예술부문

구분	접수번호(차순위 순서)	구분	접수번호(차순위 순서)
국내 예술가	11201911200076	국외 예술가	11201911210119
	11201911200078		11201911220385
	11201911220421		11201911220381
	11201911220199		11201911220391
	11201911220231		11201911220483
			11201911220340
기획자	없음		
구분	접수번호(차순위 순서)		
국내 예술가	11201911200076		
	11201911200078		

입주 절차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예정)

- 입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합니다.
- 입실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6일(금) 중
- 오리엔테이션 : 2020년 1월 30일(목), 14: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예정
 - 선정된 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계약서 작성, 입주 관련 안내, 스튜디오 배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이메일 안내에 따라 희망 신청 1순위를 받으며, 중복 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안내합니다.
 - 지참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개인도장
 - ※ 그룹의 경우, 대표(신청자)는 모두 지참, 팀원은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신분확인 서류 사본 제출

입주예술가 공모 심의평

○ 시각예술부문 - 국내 1차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1차 심의는 동시대 현대미술의 경향을 보여주듯이, 지원 작가들이 다루는 소재, 주제, 장르 등이 매우 다양했다. 작가마다 현대미술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달랐지만, 각자 자기 나름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여전히 창작언어의 재생과 반복의 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프레임 안에서 치열한 열정과 노력, 동시에 내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지원자들의 방대한 자료에서 변별성을 갖추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작품성에 의거해 순위를 합산한 후 활동계획이나 레지던시 이력과 같은 제출 자료를 검토하였다. 레지던시가 본인의 작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작가, 상대적으로 비주류 장르에 속하는 장르에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비슷한 장르의 지원자일 경우, 되도록이면 인천과의 연관성과 레지던시 입주 기간의 적정성 그리고 협업 가능성과 전시 구현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먼저 고려하였다. 또한 인천 연고자의 경우에도 레지던시 입주 기간 프로젝트 계획, 전시 구현에 있어 타 지원자보다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기재한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작품의 우수성은 물론 시기적으로 레지던시라는 플랫폼이 작품 창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 작업의 방향을 새롭게 확장하고자 하는 작가, 혹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뚜렷한 프로젝트 목표를 가지고 지원한 작가들을 선정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설립 초기부터 지향해온바, 즉 지역 커뮤니티와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지닌 작가를 중점 고려하기도 하였다. 레지던시 기간 중 작가들 간 긴밀히 협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작업의 주제, 매체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나이대의 경우도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작업의 조건과 활동 배경을 가진 작가들을 고루 분배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 기반 레지던시의 특성상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서가 많았으나 관례화되고 정형화되어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지원서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역지로 의미를 만들려 하기보다 본인의 관심사에 충실한 작업이 훨씬 의미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작업이 나온다는 점에서 자신의 작업방향을 형식적으로 지역특수성에 맞추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레지던시의 성격과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젝트와 전시 계획이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미 작업의 주제나 매체 형식이 공고하게 굳어진 작가들보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나가는 작가를 선정하고자 했다. 이유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스튜디오 이상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만나 작업과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1차 선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된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는 지역(역사, 사회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혹은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유의미한 작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본 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변화하는 동시대의 시대 흐름을 대변하는 창작활동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획자 부문에 있어 최근 현대미술은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와 이론가의 협업이 필요하며,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레지던시의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한다. 본 심의에서는 최근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창작언어를 실험하고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기획자의 콘텐츠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적응시키고, 구성/연출했는지를 파악했다. 또한, 그에 따른 기획 및 평론 글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도 검토했다. 다만 기획자의 경우 지원 건수가 워낙 적었고, 전체적으로 기획력과 전시의 시의성에 있어 다소 설득력이 모두 부족하다.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본인의 관심사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시로 귀결되는 기획을 기대해 본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인천플랫폼에 입주할 작가들과 함께 작업과 삶, 사회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새로운 예술의 언어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기획자를 후보로 선정하였다.

류한승(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문혜진(미술평론가)
이관훈(대안공간 사루비아다방 디렉터)
홍보라(갤러리팩토리 디렉터)
홍이지(미팅룸 에디터)

○ 시각예술 국외 1차

국외 입주 예술가 공모에서는 48건의 신청서 중 10명의 2차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지원자의 기존 작품 활동에 대한 평가보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레지던시 기간 중 수행하겠다고 밝힌 구체적인 작업 계획과 그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작품 계획의 시의성, 선정된 해외 작가의 국내 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류 효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고민하였다. 또한 활동 중인 지역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한국의 레지던시 경험이 없는 예술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좀더 많은 비-한국인 예술가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차 심의대상자 중 특별한 관심을 끄는 4명의 아티스트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의 예술가 BALUYOT RENZ는 아시아의 근대화 역사와 교역에 관한 흥미로운 설치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그는 기존 활동에서 해양 영토를 기반으로 나뉜 국가의 경계에 집중하며, 주변으로 펼쳐지는 정치적, 군사적 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공모에서 제안한 한국 특히,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프로젝트는 레지던시의 운영 목적에도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기반 활동 작가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보다 확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슬로바키아의 예술가 Roland Farkas는 화폐를 소재로 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이슈들을 공유한 지역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학적 담론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한국의 지역성에 집중해 다룬 차이에서 오는 낙차를 감각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일본의 예술가 Tomoko Kikuchi는 인천에 거주하는 새터민을 촬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중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Boda Liu는 한류라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를 둘러싼 테크놀로지와 그 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다. 특히 Boda Liu는 중국의 젊은 세대들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류'에 대해, 자본주의적 가치 창출의 대상으로서의 '한류'를 넘어 교차적 읽기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특히, 문화 심리학적 관점을 반영, 한류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성소수자, 제3세계 등의 문화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동시대 담론에 부합하고 한국, 그리고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리서치한 작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신의 문화권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 문제들을 진지하고 다루면서, 전혀 다른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 작가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였음을 밝힌다.

박주원(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양지윤(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조주현(일민미술관 학예실장)

○ 시각예술 최종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천아트플랫폼 2차 심의 대상자들이 전반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를 통해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수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진정성있는 계획을 통해 눈에 띄는 프로젝트들이 돋보였다. 이에 인천아트플랫폼 기관의 성격에 맞는 작업 성격을 갖춘 작가와 입주 후 공간 및

지역성을 연계해 자신의 작업을 발전할 수 있는 작가를 중점 검토하였다. 여전히 설치와 영상 작업이 두드러졌으며, 개념만큼이나 매체 자체의 특수성에 천착한 작업들이 많았다. 이번 지원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개념을 기반으로 영상 설치, 퍼포먼스 작업들이 많았으며, 이번에 선정된 작업들은 개념과 구현 과정의 설득력을 기준으로 했다. 상대적으로 회화나 조각이 저조했으나 매체와 주제에 있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상호 선순환 및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지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하는 방식 역시 작가들의 생각의 깊이와 폭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한 내용들로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회화를 새롭게 해석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기존의 유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신선한 흐름을 드러내었다. 지난해에 비하여 다양한 장르, 최근 동향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작가들의 지원이 눈에 띄었다. 특히, 포스트-매체를 실험하는 작업의 논리와 내용이 전보다 견고해진 점이 인상적이었다. 지원자가 많아 각각에 배정된 발표 시간이 다소 짧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나 오히려 압축하여 발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작가들의 평소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예상한 바와 같은 우수한 지원자들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심사위원으로서 만족함을 밝힌다. 차제에 이들이 인천아트플랫폼의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한 대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기획자 부문에서는 기획자 부분은 지원 수도 적고 신청자들의 준비에 미진한 면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 프로젝트 계획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들과 교류하며 이들 작업을 지원할 기획자로서의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성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김미진(홍익대학교 교수)
- 유진상(계원예술대학교 교수)
- 이재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 정현(인하대학교 교수, 미술평론가)

○ 공연예술 최종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과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번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공연예술부문 공모심사는 여느해와 같이 신청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새로운 예술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심사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인천아트플랫폼 공연 레지던시의 성과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선정된 예술가 간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 또한 고려하였다.

기본적으로 예술적(음악적) 역량과 기술의 질적 수준을 우선시하면서 입주 예술가 간의 상생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선정하였으며, 현대음악이라는 상상과 표현에 열려 있는 장르를 통해 여러 콘텐츠와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담아보려는 작품, 현대음악과 가까운 장르에 있는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을 확대하려는 작품, 고급 기술에 대한 자량보다는 자신만의 특화된 음향적 기술력을 통해 정체성 있는 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 인천의 지형적, 문화적 감수성을 현대음악이라는 그릇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작품, 영상이나 연극 등 다른 매체에 대한 이해도와 융합을 위한 연출력 등 장악력이 완벽한 작가를 선정하였다.

음악 외적 요소와의 접목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원화되어가는 현대음악의 분명한 흐름과 요구 속에서 지원한 예술가들의 높은 수준과 다양성이 이번 선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아무쪼록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우리나라 예술발전에 큰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 손경도(과천시민회관 공연담당자)
- 송현민(월간객석 기획실장, 음악평론가)
- 원일(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심의위원명은 가나다순입니다.